



2011년 마이클 멀렌 합동참모본부의장 역시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부채”라고 경고했다.

연방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목적은 외국과 국내의 적들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채에 있어서는 풍자 만화 캐릭터로 유명한 Pogo의 말이 적절하다. “우리는 적을 만났고,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의회에서 치솟는 지출과 부채의 실존적 위협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더 이상 연방 정부의 필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결의안은 양당이 국가 안보 지도자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위기의 숲이 끓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18/06/11/the-threat-to-national-security-that-hardly-anyone-is-watching/>